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리아드 G20 정상회의에 참석, 의제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수인력의 이동 원활’ 文 대통령 제안 통했다

**G20정상들 ‘정상선언문’ 채택
“코로나 치료제·백신 공평 분배
개발도상국·최빈국들 지원할 것”**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공평한 분배 차원에서 G20 정상들은 자금 지원에도 뜻을 모았다.

G20 정상들은 23일 오전(한국시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정상선언문은 ▲도전요인에 대한 공동대응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회복 구축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 보장 ▲지속가능한 미래 보장 등 4개 분야, 3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G20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코로나19 진단 기기, 치료제 및 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적정 가격에 공평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G20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 수단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ACT-A, 액트 에이)”, ‘세계 백신 공급 메커니즘(COVAX Facility, 코박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G20 정상들은 “사회 전반에 코로나19의 영향이 나타나는 모든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을 지원할 것”이라며 저소득국의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채무 원리금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도 내년 6월까지 이어가기로 한 기존의 약속도 재확인했다.

이들은 또 “다자무역체제를 지원하는 것은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

다.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의 시장을 개방해두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G20 정상들은 “전 세계 운송망과 공급망이 개방적이고 안전하게 유지되고, 항공 및 선박 승무원에 대한 조치를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어떠한 제한적인 조치도 그 대상이 한정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일시적이며 국제 협약상의 의무와 일치하도록 보장할 것을 결의한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G20 화상 특별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원활한 국경 간 이동 지원’ 항목이 선언문에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의 제안이 각국의 폭넓은 지지 속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G20 정상들은 또 환경 훼손 예방과 함께 기후 변화에 따른 대처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이들은 선언문에서 “각국의 상황에 따라 가장 넓은 범위의 연료와 기술 선택을 활용하는 것을 비롯해 에너지 안보, 경제적 효율성, 환경, 안전성을 실현하는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도 전날(22일) G20 정상회의 제2세션 의제 발언에서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며 “한국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文 대통령, 주일대사에 강창일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주일본국 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에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명예회장(사진)을 내정했다.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강창일 내정자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 이후 일본 동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객원교수로 지낸 인물로 정치권의 대표적인 ‘지일파’로 꼽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강창일 내정자는) 당사국에 대한 대사 임명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임명될 예정”이라며 이같은 사실



에 대해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일본 동경대 석·박사 학위를 받고, 학계에서 오랜 기간 일본에 대해 연구한 역사학자이고,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 기간에는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과 회장을 역임한 일본통(通)”이라고 강 내정자에 대해 소개했다.

/최영훈 기자

한국형 구제역 백신 시제품 개발·생산

**검역본부, 접종부위 근육손상 줄여
“전량 수입하던 백신 수출도 가능”**

정부가 한국형 구제역 백신 시제품 개발에 성공, 시제품을 생산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형 구제역 백신 시제품을 생산해 품질평가 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제품은 효능 평가 등 여러 가지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톤 단위의 본 생산 규모보다 작은 규모로 생산한 시험용 제품이다.

검역본부는 2017~2020년 15종의 구제역 백신 종자바이러스를 개발해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에 보관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시험생산 규모

(100l)의 제조공정 기술을 확립했다. 이후 자체 보유한 백신연구시설을 이용해 구제역 2가 백신(O형 보은주와 A형 연천주) 시제품을 생산했다.

구제역 O형 보은주와 A형 연천주는 국내에서 분리한 바이러스를 이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형 구제역 백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구제역 O형 보은주는 국내에 유입 가능한 O형의 여러 지역형 바이러스에 대해서 광범위한 방어 효과를 나타내며 백신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안티바이러스 리서치’ 9월호에 실렸다.

A형 연천주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A22 IRQ 백신과 같은 효능을 나타냈다. 이번 시제품 백신은 접종

량을 2ml에서 1ml로 줄여 접종 부위의 국소반응을 최소화했고, 기술개발을 통해 근육 이상과 같은 백신 부작용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제역 백신 시제품은 바이러스 방어 효과, 면역 지속기간 확인, 안전성 평가 등 여러 추가적인 시험을 거쳐서 상업화 백신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박종현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은 “한국형 구제역 백신은 접종 부위의 근육 손상을 줄이는 기술이 더해져 현재 사용 중인 외국산 백신보다 한층 개량된 백신”이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구제역 백신을 국산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이 가능할 정도로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그린바이오·스마트팜 등 농식품 벤처 10곳 선발

**농식품부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내일부터 이틀간 결선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결선행사를 25일(마케팅형), 26일(투자유치형) 이틀 동안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참가기업 수는 494개사로 전년보다 약 10% 이상 증가해 경쟁이 더 치열해졌고, 예산과 본선을 거친 결선 진출 20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인 11곳이 그린바이오, 스마트팜, ICT 등으로 첨

단·신기술 분야가 늘었다.

이번 결선 행사에선 두 유형별 5곳씩 최종 10개 기업을 선발한다. 마케팅형은 제품 판매 가능성 중심으로 평가하고, 투자유치형은 기술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평가 방법은 두 유형 모두 전문가 대상 발표평가 점수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인데, 투자유치형의 경우 실제 투자자(VC)의 모의투자금액 환산 점수도 포함한다.

최종 선정 기업들엔 총 2억 원의 시상금과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 등

상장이 수여된다. 또 정부사업 연계와 대·중견 기업의 후원으로 사업화자금, 상품기획, 유통점 입점 등이 지원된다.

농식품부 송남근 농산업정책과장은 “올해 콘테스트가 그린바이오, 스마트팜과 같이 미래를 견인할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농식품 산업의 밝은 미래를 보여줬다”며 “창업가 및 예비창업가가 창업역량을 키워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전KDN 정재훈전력융합사업본부장(오른쪽 세번째).

한전KDN, 스마트 안전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난방공사·휴먼아이씨티와 맞선
기술협력·교류 위한 협약 체결**

한전KDN은 최근 한국지역난방공사, ㈜휴먼아이씨티와 스마트 안전지원 기술협력 및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에서 열린 이날 업무 협약식은 정재훈 한전KDN 전력융합사업본부장, 김진홍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전기술본부장, ㈜휴먼아이씨티 강기현 대표이사가 참석, 스마트 안전지원 시스템 구축 및 실증을 통한 지역난방 플랜트 현장에서의 안전지원 기술개발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 플랜트 운영기술, 한전KDN의 스마트 안전지원 시스템 설계 및 구축경험, 휴먼아이씨티의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의 융합을 통해 안전표준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AI Vision 실증 및 기술개발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 확대 적용 및 고도화를 통한 현장 안전 강화 협력 ▲ICT 융합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안전환경 체계 구축 ▲지역난방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공동 협력 ▲개발 기술 및 안전지원시스템 판로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다.

/강성대 기자 ksd1008@

“부산 싹 다 바꾸겠다”

**이진복 前 국민의힘 의원
부산시장 출마 공식선언**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부산을 싹 다 바꾸겠다”며 내년 4월 치르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월석아트홀에서 출마선언식을 갖고 ‘스마트 신(新) 시티(Sea:Ty)’ 조성 등 주요 공약에 대해 발표했다.

출마 선언에서 이 전 의원은 “멈춰서고 추락하는 부산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부산을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부산시민들이 부산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자긍심과 자존심을 되찾고, 부산시민의 기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부산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은 불경기와 코로나 사태로 엉망이 됐다.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해양물류산업, 건설업 등은 무너져 부산 경제를 이끌어갈 구심점이 사라졌다”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위기의 부산’, 미래 비전이 없고, 먹고살 것이 없는 부산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최영훈 기자